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십자가와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의 삶 [빌립보서 3:17-2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입니까?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라는 부르심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존재함을 통해 주님을 섬기려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옛 것은 잊어버리고 얻게 될 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의 이런 삶(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닮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분의 은혜의 사역들과 부활의 권능과 그 분의 희생을 통한 교재입니다. 우리의 말<sup>1)</sup>과 행동<sup>2)</sup>은 함께 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의 삶**이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를 염두에 두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 당신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십시오.” 어떤 종류의 삶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의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 외에 다른 삶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자신(자신의 욕심)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보단 차라리 다른 곳에 있길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만 다른 사람과 화해하길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남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죄 된 본성을 사용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20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찐저”* (이사야 5:20).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기질을 찾고 결정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세상에 마음을 두며 사는 것을 정죄합니다.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5:5-9). 이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생각할 때 어처구니없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공허하고 절망적이며 심지어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삶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아니면 지옥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순종과 축복의 길을 걷든지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걷

던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삶과 죽음, 십자가의 친구 아니면 적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분은 자신을 비우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십자가를 통한 구원) 없이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십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삶은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복음)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마치실 구원의 삶의 완전한 확신 속에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겠지만 확실한 지식 안에 삽니다. 우리는 이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 삶에 마주치는 모든 유혹들과, 우리 안에 축적되어온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말끔히 걷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닳고 헤진 몸도 그 분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 1)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
- 2)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